

너의 운명이 보여



홍 숙 영 위원

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영화 '대체'에 나오는 말이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생각과 말, 행동,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치 우리의 직업이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직업적 특성이 몸에 배게 된다. 몇 년간 기사를 하다가 교수로 방향전환을 한 이후 3년 전부터 언론중재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자, 교수, 중재인의 직업적 특성을 익히게 되었다.

초창기 기자생활을 할 때,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으로 인해 나는 늘 일에 빠져있었다.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문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부분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급기야는 이러다가 인간관계마저 나빠지겠다는 위기감마저 갖게 되었다. 이후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게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평가하는 이 직업적 특성이 나를 훈계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의 일상에서 일의 순위를 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습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굳어질까 봐 경계하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이 생겼다. 바로 언론중재위원. 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의 삶에 '법'이 들어오고 경청과 판단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사실 법을 멀리하게 된 데는 유학생생활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 탓이 크다. 파리2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할 때 석사과정에서 전공필수로 커뮤니케이션법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시험 문제가 법조문을 들어 해석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낙제. 재시험을 치렀지만, 성적이 조금 올라 겨우 통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을 하게 되면서 자주 법조문을 찾아보고, 법적 근거를 따지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심해보고 다른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새롭게 얻게 된 이 일은 TV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다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법정 드라마 장르로 구분되는 SBS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시청하면서 법률용어를 익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판결을 이끄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짱변'이라 불리는 국선변호사 장혜성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검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로 뛰며, 판사가 고심하며 판결을 내리는 현실세계의 모습이 펼쳐진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소년이라는 환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이성적이며 또 때로는 로맨틱하게 풀어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의 일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의 결정으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청하며, 언론의 권력을 경고하는 우리의 일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따뜻하며, 보다 정의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